

상하악 지치 발치 중 타부위로 이탈된 경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하악 지치에 대한 과도한 외력이 가해진 경우 상대적으로 얇은 설측치조골이 파괴되면서 lingual space로 이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대개는 악설골근(mylohyoid muscle)을 관통하여 경부의 근막(cervical fascia)상에 놓이게 되거나 악하공간(submandibular space)내로 이탈되게 된다. 특히 설측 치조골이 얇거나 천공되어 있는 경우 과도한 posterior & lingual elevation에 의해 야기된다. 이러한 경우 엄지 손가락을 하악골 하연에 위치시켜 상방으로 이탈된 치아를 밀어올려 제거 하지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mylohyoid muscle을 절개하거나 구의 접근법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일단 구강저에서 이탈된 치아가 촉지되지 않을 때에는 일단 창상을 봉합하고 항생제를 투여한 후 방사선 사진과 임상 검사로 치아의 위치를

전남대 구강악안면외과 부교수 이종호

찾은(localization) 다음 이차적으로 제거하면 된다.

상악지치의 경우 과도하게 가해진 후상방의 force에 의해 infratemporal fossa내로 지치가 이탈되는 경우가 있는데 구강내에서 이탈된 치아가 보일때에만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고 pterygoid plexus oozing등에 의해 치아가 확인되지 않으면 일단 창상을 봉합하고 항생제를 투여한다. 그후 이탈된 치아의 위치를 방사선 사진이나 컴퓨터 단층 사진등을 통하여 확인(localization)하여 일주일 후에 제거를 시도한다.

